

올해 프로야구 우승 팀은?

한국갤럽, 가장 좋아하는 구단 기아·롯데·삼성 순 좋아하는 선수 추신수 22%·류현진 19%·이대호 6%

디펜딩 챔피언 NC다이노스가 올해 프로야구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국내 프로 야구팀을 묻은 결과(자유응답) 기아 타이거즈(11%), 롯데 자이언츠(9%), 삼성 라이온즈(8%), 한화 이글스(7%),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SSG 랜더스(이상 5%), NC 다이노스(3%), 키움 히어로즈(2%), KT 위즈(1%) 순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성인 10명 중 4명(44%)은 특별히 좋아하는 국내 프로야구팀이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 구단 선호도가 작년 대비 1%포인트 이내 등락에 큰 차이 없는 가운데 두산 베어스는 3%포인트 하락, SSG 랜더스는 2%포인트 상승한 점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프로야구 관심층(341명)이 좋아하는 구단은 기아(17%), 롯데(14%), 삼성(12%), 한화(11%), LG(10%), 두산(9%), SSG(7%), NC, 키움(이상 5%), KT(1%) 순이다.

2021년 올해 어느 팀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은 결과 9%가 작년 우승 팀인 NC 다이노스를 꼽았고, 그 다음은 두산 베어스(7%), SSG 랜더스(6%), 기아 타이거즈(4%),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이상 3%) 순이었으며 61%는 의견을 유보했다.

NC 팬 중 60%가 작년 첫 우승에 이은 2연패 염원을 밝혔고, 두산과 SSG 팬 중에서는 각각 37%가 선호 팀 우승을 예상했다. 참고로 국내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이후 우승 횟수는 기아 타이거즈 11회, 삼성 라이온즈 8회, 두산 베어스 6회,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4회, 롯데 자이

언츠와 LG 트윈스 각 2회, 그리고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 각 1회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서 좋아하는 선수를 묻은 결과(3명까지 자유응답),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끝내고 SSG로 국내 리그 합류한 추신수가 선호도 22%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작년 초 LA 다저스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한 류현진(19%)이다. 그 다음은 이대호(롯데, 6%),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양현종(텍사스 레인저스)(이상 4%), 이정후(키움, 3%), 양의지(NC, 1.7%),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최지민(탬파베이 레이스)(이상 1.5%), 손아섭(롯데, 1.2%), 나성범(NC), 오승환(삼성)(이상 1.0%) 순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국내 프로야구 선수가 "없다"는 응답은 58%다.

한편 이번조사는 지난 23·25일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 수준)이다. 오은지기자 eioh@halla.com



온 힘 다해 리시브 3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가든에서 열린 마이애미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 남자 단식 경기에서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블레프가 크로아티아의 마린 칠리치의 공을 리시브하고 있다. 이날 루블레프는 2-0으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세계 1·2위 동반 라운드 고진영·박인비 1R 격돌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 2위인 고진영(26)과 박인비(33)가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 달러) 1라운드를 같은 조로 치른다.

31일(한국시간) 발표된 이번 대회

조 편성을 보면 고진영과 박인비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함께 1라운드 경기를 하게 됐다. 1번 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하며 티오프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오전 4시33분이다.

올해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피레이션은 4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파72·6763야드)에서 개막한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고, 2위 박인비 역시

2013년 우승자다. 고진영은 2019년 이 대회와 에비앙 챔피언십에 이어 메이저 3승째를 노리고, 박인비는 2018년 이 대회에서 '1박 2일'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아쉬움을 털어낼 기세다.

지난해 이 대회 정상에 오른 이미림(31)은 에리아 주타누칸(태국), 오스틴 언스트(미국)와 한 조로 경기한다.

세계 랭킹 3위 김세연(28)은 제시카 코르다(미국), 조피야 포포프(불국)와 함께 1라운드를 치른다. 연합뉴스

코리안 빅리거 출격 준비... 기대감 '가득'

2021년 MLB 2일 개막 류현진 사이영상에 도전 김하성 치열한 팀내 경쟁

이제 시작이다. 지난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호령했던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최지민(탬파베이 레이스)과 빅리거의 높은 벽에 도전하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출격한다.

이들은 2일(한국시간) 각 구장에서 개막하는 2021년 MLB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뛴 전망이다.

류현진은 아시아 최초의 사이영상 수상이라는 새 역사에 도전장을 던진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토론토 구단의 임시 구장 사용, 세 팀 적용 등 갖가지 외부 변수를 이겨내고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했고, 올해 3차례 시범경기에서도 1승 평균자책점 3.60, 피안타율 0.268을 기록하며 새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류현진은 다음 달 2일 미국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 정규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하는데, MLB 개막전에 3년 연속 선발 등판한 최초의 한국선수라는 새로운 이정표도 세울 예정이다.

류현진은 2019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 사이영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올해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사이영상 수상의 영예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김광현과 최지민은 일단 부상자 명단(IL)에 이름을 올리고 몸 관리에 집중한다.

김광현은 지난 14일 등 통증을 호소한 뒤 훈련을 중단했고, 이후 캐치볼-볼펜투구-시뮬레이션 피칭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훈련을 시작했다.

그는 개막 후 2-3차례 선발 로테이션에서 제외된 채 투구 수를 늘리는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광현은 빅리거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해 팀 3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62의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올해 시범경기에선 부상 여파로 인해 3경기 평균자책점 16.20으로 부진했다.

최지민의 몸 상태는 더 좋지 않다.

그는 지난달 28일부터 계속된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복귀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최대한 몸 관리에 집중하며 빠른 복귀를 시도할 전망이다.

김하성은 치열한 팀 내 경쟁에 나선다. 올해 MLB에 데뷔하는 김하성은 시범경기 초반 빅리거 투수들의 빠른 공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다. 그러나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다시 일어나고 있다.

김하성은 올해 19차례 시범경기에서 42타수 7안타 삼진 15개, 9볼넷, 타율 0.167, 총루율 0.314를 기록했다. 좋지 않은 기록이지만, 최근 6경기에서 13타수 4안타(타율 0.308) 5볼넷의 좋은 성적을 냈다.

양현종(텍사스 레인저스)의 거취는 불투명하다. 그는 30일 마지막 시범경기 등판에서 제구 난조에 시달리며 % 이상 1피안타 3볼넷 2실점(2자책점)으로 부진했다.

만약 양현종이 마이니그리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면, 그는 약 한 달 동안 실전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훈련에만 열중해야 한다. 연합뉴스

제주Utd, 뒷문 확실하게 걸어 잠근다

전남 수비수 김주원 영입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는 수비 강화를 위해 전남 드래곤즈 수비수 김주원(29·사진)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주원은 포항 스틸러스 유스 출신으로 지난 2013년 포항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2017시즌을 앞두고 전남으로 이적한 김주원은 아산(2018-2019)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고 2019년 전남으로 다시 돌아왔다. 지난해 전남의 주장 완장을 찼을 정도로 수준급 수비수로 성장했으며, K리그 통산 124경기에 출전해 4골 2도움을 기록했다.

제주는 "김주원은 중앙 수비수뿐만 아니라 측면 수비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김주원의 가세로 제주의 수비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대인방어와 정교한 통커를 앞세운 빌드업이 좋아 빠른 공수 전환으로 경기를 장악하는 남



기일 감독의 축구스타일에도 부합하는 수비자원"이라고 밝혔다.

김주원은 "제주는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제주라는 팀이 더욱 빛날 수 있게 온 힘을 다해 뛰고 싶다"면서 "비록 팀 합류가 늦었지만 빠르게 녹아들어 동료들과 시너지 를 내고 싶고, 코칭스태프와 팬들에게 신뢰를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오은지기자

FIBA 농구 명예의 전당

아시아 최초 박신자 헌액

1967년 세계여자농구 MVP

1967년 국제농구연맹(FIBA) 세계여자 선수권대회최우수선수(MVP) 박신자(80) 여사가 아시아 최초로 FIBA 농구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에 헌액됐다.

FIBA는 31일(한국시간) 2020년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를 발표했다.

FIBA 명예의 전당에 한국인이 헌액된 것은 2007년 고(故) 윤덕주 여사 이후 박신자 여사가 두 번째다.

FIBA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에 아시아 국적자가 헌액된 건 이번 동시에 선정된 박신자 여사와 일본의 사코 겐이치(51)가 처음이다.

박신자 여사는 1967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열린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비록 팀 합류가 늦었지만 빠르게 녹아들어 동료들과 시너지 를 내고 싶고, 코칭스태프와 팬들에게 신뢰를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오은지기자

명예의 전당 헌액 행사는 6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국경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공감 스페셜 11:55 솔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코보남 대한민국 리아비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코보남 대한민국 리아비 2부 9:15 코보남 대한민국 리아비 3부 10:00 속이도 꿀꺽(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언쟁? 나야(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외주인(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불새 2020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뽀뽀뽀 뽀로로 8:00 뽀뽀뽀 유치원 9:40 유치원 유치원 10:30 한국귀요미 13:00 일단 해봐요 13:00 생방송 오후 1시 14:10 명의 15:15 클레스 e 16:15 워터지 뮤직박스 16:30 뽀뽀뽀 유치원 18:00 생방송 밤과 후문 19:35 자이언트 핑크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생로병사의 비밀(재) 13:50 불행해도 괜찮아 13:55 한국의 인류유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제26회 플러스119상 시상식 15:4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인강국경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누가 잘하나 17:00 미라클로니 17:15 캐치 티핑 포인트 17:30 농친 예능 마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MBC 뉴스 12:20 반박이는 프리체널2 12: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13:20 푸라기 식사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다크에세이 그사람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0 JIBS 뉴스 12:40 펀드하루스 2(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승수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살게 앞배끼(재)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박자의 아침뉴스 9:00 고대까지 감성충만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세거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일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KBS 내고향 19:00 KBS제주방송총국 제주4·3 73주년 특집뉴스 19:40 한국의 밤상 20:30 속이도 꿀꺽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와이드 맵 플러스(재) 22:10 다크 인사이드 23:00 더 라이브 23: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리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UHD 환경스페셜 21:30 언쟁? 나야 22:10 언쟁? 나야 22:40 수이신장 1부 23:15 수이신장 2부 23:50 스튜디오 K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외주인 21:55 외주인 22:30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23:3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8:50 클리! NOW 제주 스페셜 19:20 행복충전 해피플러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힐링 in 제주 21:05 외국의 광장 1부 21:35 외국의 광장 2부 22:05 외국의 광장 3부 22:35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23: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7:00 KCTV 뉴스 8:00 인터뷰 제주공감 8:30 방송관련조정위원회 수상작 10:30 꽃차원, 생방송을 본다 13:10 넘어, 연결하다 14:00 인터뷰 제주공감 15:00 KCTV 뉴스 16:10 UHD 특선 18:00 넘어, 연결하다 20:00 인터뷰 제주공감 21:0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일 김홍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사소한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기 조심. 48년 동료나 동업자, 거래처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설수가 되니 후나 차광운전은 삼가고 조기 귀가가 좋다. 72년 말 끝맺음이 있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날. 장미꽃에 가시 가 있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이지 마라.

37년 낙상이나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조심. 49년 재물손실이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경쟁업체 등장. 61년 사업이나 진로개발 등 제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73년 약속이 충족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기 신의에 충실하라. 85년 기증자 튜브해야 하니 매사를 꾸준히 다져 나가게 습관이 필요.

38년 든든한 내 자식의 자랑도 남이 해야 더욱 빛난다. 50년 치밀하고 꼼꼼하며 정확함이 돋보인다. 62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자녀나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있는 날. 74년 차광운으로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 조심. 86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39년 친인척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격정스런 소식을 접한다. 51년 웃어른 일로 자금이 지출되거나 손재수가 있다. 63년 사업이 호전되면 직장은 명예, 승진. 75년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너무 들뜨면 구설에 시달리기 마음을 편하게 하라. 87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추진되고 기쁨도 있다.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게.

40년 이웃과 나눔을 갖거나 먹을 복이 있다. 52년 경력과 노하우로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증가시키기도. 64년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니 즉시 화해할 것. 76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시기가 생겼다가도 없어진다. 88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출이 기다리고 있다.

41년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 53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65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요망. 77년 집안에 격정이나 근심이 있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취하라. 89년 약속이 깨어나고 계획이 없으나 차질이 생긴다.

42년 갈 곳 많이 있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출할 것. 54년 주변에 나를 알려면 대인관계를 지속하라. 66년 솔직하고 화끈함을 좋아해도 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지 하지 마라. 78년 집안에 뒷사람 일로 걱정이 생기기 안부전화를 해드리면 좋다. 90년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 생기면 참석하라.

4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라. 풀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55년 직장에서의 기쁜 일이 없거나, 관공계약이 있다. 67년 이성교제나 새로운 이성관계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갈등.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대책이 있고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91년 의욕이 증가하여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한다.

44년 좋은 일 속에 흉이 도사리니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56년 명예나 인간관계 체체술이 뛰어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68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복력에 인정받는다. 80년 시험, 공부 좋은 일 직장인은 갈등 고민. 92년 관청에 할 일이 있어 외출을 하거나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5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귀가 늦지마라. 57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 필요. 58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0년 소개 또는 중매를 받아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호기심이 발동하고 구매의욕이 커진다. 94년 의욕이 상승하나 계획추진에 지연되는 모습으로 심사숙고 필요.

47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때론 필요하다. 59년 자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 정전공공. 71년 멧을 내고 외출하라 한다. 이 성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83년 취업 등 직장내 업무로 바쁘고 분주하다. 95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진다. 변동하는 것은 신중을.